

광주 복구, 폭염 피해 ‘총력 대응’ 나서

돌봄취약 1인가구 4965세대 대상 야외 근무자 냉방 물품 보급 등

광주광역시 복구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구는 돌봄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일부터 50세 이상 1인가구 4965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방문,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대상

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지난 5월 경로당 내 설치된 냉방기 현황을 파악하고 노후 냉방기에 대한 보수 및 교체를 마쳤으며 경로당에 하절기 냉방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 누구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41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

영하고 있으며 그날막 128개, 쿨링포그 7개소 등 총 171개소의 폭염 저감시설도 본격 가동 중이다.

이에 더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근린공원 4개소(우산·문화·양산호수·일곡제2근린)에서 주 1회 얼음물을 배부하고 도시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살수차 5대가 복구 주요 도로를 돌며 물을 뿌리고 있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인·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쿨 스카프, 아이스 조끼 등 냉방 물품을 지급했으며 건설 현장과 같은 실외 작업장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문인 복구청장은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팀 가동 광산구, 오는 21일부터 운영 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을 위해 전담 특별업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광산구 9개 부서, 21개 동으로 구성했다.

광산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쿠폰 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한다.

광산구는 오는 21일부터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창구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각 동 창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신청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2주간 인력 투입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 시민이 대상이 되는 만큼, 신청 누락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선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민생경제 회복 밑거름이 되도록 구 차원의 활용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무엇보다 신청·지급 전 과정에서 시민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공직자 마음건강 ‘행복약국’ 운영 서구, 정서 회복·조직 활력 도모

광주광역시 서구가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힐링행장’에 나서며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서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행정업무와 대민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정서 소진 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잇따라 기획·운영 중이다.

서구는 지난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적 여유를 위한 체험형 이벤트 ‘행복약국’을 열었다. 행복약국은 △마음처방(회복탄력성과 현재 감정의 이해를 돕는 그림 검사) △운세처방(타로카드를 활용한 상담) △웃음처방(세컷사진과 캐리커처 촬영) △자세처방(체형·보행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직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행복약국은 지난해 첫 운영 이후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한 차례 추가 운영됐고, 올해는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외 금호1동과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행복약국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복약국이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섬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의 정서적 회복력과 긍정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급식지원센터 조리원 역량 강화 서구, 현장 적용해 식중독 예방

광주광역시 서구는 9일 청사내 들불홀에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조리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실 관리수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임소영 서구청 팀장이 강사로 나서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노로바이러스의 특성과 대응법 △위생적 식재료 관리 및 조리실 환경 유지 요령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생적 관리 사례와 비위생적 사례를 실제 사진으로 비교 제시하고, 참여형 퀴즈를 병행해 조리원들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조리원은 “막연하게만 느꼈던 조리실 위생 관리가 실제 사례와 설명을 통해 쉽게 다가왔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승우 기자**

장애인 거주 ‘주택 개조’ 지원 남구, 9세대에 3420만원 투입

광주광역시 남구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3420만 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주택을 개조하는 가구 수는 총 9세대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낮은 장애인 가구이며, 주택 유형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이다.

남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 거주 주택을 1순위로 지원하며, 장애인 다수가 살고 있는 주택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 등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380만원 이내이다. 해당 금액은 가정 내 이동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 용도로 쓰이며, 주로 화장실 정비와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보조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준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내에 조성중인 어린이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가 8월 정식개관을 앞두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금남지하도상가, 어린이 미디어 체험공간 ‘빛나는 아이나라’ 개관 앞뒤

“지하상가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 금남지하도상가 내에 조성 중인 어린이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가 오는 8월 정식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주 동구는 5·18민주광장 지하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일원 유휴공간 39개소를 리모델링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유료 어린이 체험시설을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빛나는 아이나라’는 ‘빛의 뮤지엄 및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착공해 2025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준공식에서는 디지털 드로잉 퍼포먼스, 시설 투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8월 초 정식개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8개 공간으로 구성된 ‘빛나는 아이

나라’는 △디지털 아트 교육 및 AI 리포트를 생성하는 ‘빛나는 클래스’ △아이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동화 제작 체험 △3D프린팅 및 레이저커팅 체험이 가능한 ‘뚝딱공방’ 등으로 꾸며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도심 속 버려졌던 지하공간이 어린이 창의력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시민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밤마실’ 운영 활발

‘누구나 요가’ 4기 개강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이 ESG지속가능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야호(夜好)마을복지관 ‘밤마실’을 지난 2월25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밤마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광산구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요가 △라인댄스 △탁구 △헬스장 개방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가족 친화적이고 세대 통합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참

여율 증가와 높은 고객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력 프로그램인 ‘누구나 요가’는 지난 달 30일 3기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난 1일에 4기 개강식을 곧바로 진행했다.

4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요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의 장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김단아행복나루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